

## 2020 충남비전과 핵심전략

김동완(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 본고를 통해 제시하는 충남 중장기비전은 충청남도가 수립할 각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I. 2020충남비전 수립배경

21세기 들어 우리가 처한 국제환경은 개방화라는 거대한 물결속에 FTA, DDA협상 등 자유무역체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한 과거의 경쟁체제로는 국제시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지방이 스스로 세계 각국과의 경쟁주체가 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 경제는 지난 '95년 이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만불의 늪"을 건너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친 중앙집권적 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술모방이 아닌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비전을 창출하는 지역혁신발전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는 지방주도의 지역혁신발전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새롭게 변화된 환경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장기비전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동안 충남도가 발표한 「4대권 경영개발구도」 등 10개의 중장기계획 및 계획에 포함된 527개 시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동안의 각종 계획들이 H/W중심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 계획간의 종합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충남2020 정책비전의 정립을 통해 도민과 공무원 지역내 사회단체 등이 공유할 수 있는 원대한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우리 충청남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들로, 그동안 정책자문교수단 및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정립한 것이다. 앞으로 도민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 지역혁신의 주체들은 이들 목표와 핵심과제들을 지역발전의 Guideline으로 공유하여 우리 道 발전계획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 II. 충청남도의 비전과 발전전략(안)

새롭게 제시할 2020충남비전의 시간적 범위는 장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기적 범위와 단기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중기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으로는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한다.

도민과 공유할 기본목표는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 등 국정과제와 지역현안과제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남도 ChungNam, Heart of Korea」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분야별 비전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개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목 표 ] -----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남도  
『 ChungNam, Heart of Korea 』



[ 비 전 ] -----

비전 1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충남(Dynamic충남)
비전 2	교육문화의 중심 충남(Edu-Culture충남)
비전 3	쾌적하고 풍요로운 충남(Amenity 충남)
비전 4	세계인이 신뢰하는 충남(Trust 충남)



[ 전 략 ] -----

- ① 전국연결 『교통·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 ② 산업구조 고도화 및 新지식산업 특화육성
- ③ 친환경, 고품질의 교육·문화·정주여건 조성
- ④ 신뢰받는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 ⑤ 사회통합에 기반을 둔 자치거버넌스 체제 도입

### Ⅲ. 20대 핵심 과제

비전 1	-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충남(Dynamic 충남)
------	-----------------------------

#### 1. 신행정수도 순환 고속교통망 구축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ChungNam, Heart of Korea」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입지하게될 신행정수도의 역동성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 아울러 신행정수도의 배후지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행정수도과 인접지역들을 연결하는 신행정수도 순환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신행정수도과, 천안-공주-논산-대전-청주를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방사형 고속교통망 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또한 신행정수도과 천안-공주-논산-대전-청주를 연계하는 경전철을 건설하여 경부·호남고속철도,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장항선, 충청선철도와 대전도시철도와의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2시간대 접근 교통망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 자유경제특구 지정

중국과 인접한 충남의 서해안 지역(당진, 보령, 대산 항만 배후지역)에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와 경영활동 및 생활편익시설 설치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유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서해안 지역의 자유경제특구는 대중국 교역, 물류가공, 생산기지 중심기능을 수행토록 특화시켜 물류/비즈니스 중심으로 특화된 송도, 부산 경제특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륙과 항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외국인 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하며, 종합 보세구역과 비즈니스 파크, 기술거래소 등을 건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3. 5대 신전략산업의 동북아 Hub 기지 건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산업별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5대 전략산업을 우리 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가. 전자·정보기기 산업

세계적인 Display Korea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여 2010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40% 점유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충남기술거래센터(RTTC),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NIT산업지원센터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크리스털교역전」을 2007년부터 개최하고 수출상담과 기업설명회, 사업전략 심포지엄, 국제게임트레이드쇼 등을 실시하여 관련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 나. 자동차·자동차부품 산업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체인 대기업과 부품업체인 중소기업간의 연계효과가 큰 산업으로 2010년까지 자동차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현재0.4%)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산·서산지역의 생산기반과 천안지역의 R&D기능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부품개발표준화연구센터, 첨단기계부품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 다. 첨단문화산업

도내에 산재한 백제·내포문화권의 문화유산과 각 지역축제등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자원과 전자게임·전자영상·전자출판·전자음반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문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상미디어관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국립애니메이션제작소 유치, 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해 게임관련업체를 집적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첨단문화산업의 수요창출과 붐 조성을 위해 국제게임트레이스쇼를 개최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e-sports 축제로 발전시키며, 유·무형의 백제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주와 부여 인근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참여를 통한 문화콘텐츠은행을 설립 운영하여 CT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라. 관광산업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으로 관광축 이동, 중국 관광객 급증, 주5일제근무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충남을 국제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제·내포문화권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해안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체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서해안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사업 관련 관광자원도 적극 발굴하여 국가위상 제고 및 관광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 마. 생물산업

충남 전역에 형성된 축산업과 전통적인 인삼·약초산업을 바탕으로 동물백신, 한방신약개발 등을 집중 육성하여 2010년에는 전국 바이오산업 매출액의 15%, 세계시장의 2% 점유를 목표로 생물산업을 특화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자원화사업센터와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동물자원사업을 지원하고 형질전환동물 개발사업, 실험동물 생산 및 인공장기 생산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삼약초바이오식품산업사업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인삼박물관, 인삼유통센터, 건강식품 가공시설과 창업보육센터 등을 유치하여 인삼과 약초산업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세계적 이목을 집중받았던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우리 道の 홍성지역 축산농가에서 원거리 연구를 진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설립할 축산바이오테크노파크에는 특별무균실설치 무균돼지생산 등 연구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세계 최고의 연구진을 유치할 계획이다.

#### 4. 충남지식두뇌벨트(Brain Belt) 조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 창출과 유통을 통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밀집되어 있는 천안 서산 아산 공주 연기지역일대에 과학기술R&D 및 산업공학 중심의 「T」자형 Brain Belt를 조성하여 과학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기업체와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양성과 지역내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특화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충남고등과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첨단기술과 지식들을 지역산업에 확산시키기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 차세대성장동력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재단 산하에 신기술융합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 시키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경제발전이 더 이상 기술모방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 등 고급연구진과 기업간의 기술교류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남테크노파크의 기술거래소 기능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 5. 기업신도시(Company New Town) 건설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아산, 석문, 장항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신도시(Company New Town)를 건설하고자 한다. 기업신도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보장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특구 형식으로 조성하며 이를 통해 매력 있는 주거환경공간, 문화공간과 교육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비전 2	- 교육·문화의 중심 충남(Edu-Culture 충남)
------	--------------------------------

### 1.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는 명문고교 육성

교통시설의 발달로 우수기업체 종사자들의 근무지와 생활거주지가 괴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도내 각 지역별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명문고교를 육성하여 전국 제1일의 교육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명문고교 육성방안으로는 1) 전국경쟁을 통한 우수 신입생 선발제도 도입 2) 학교별 교육방법과 학습과정의 차별화 인정 3) 장학금지급과 질 좋은 기

숙사 제공 4)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 선진외국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완비를 통해 기존의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와 차별화된 특혜를 부여하여 고교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산신시가지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산업화 급성장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2. 테마캠퍼스타운 조성

충남에는 37개의 대학캠퍼스에 16만명의 대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아산지역은 국내최대의 캠퍼스 밀집지역이지만 캠퍼스타운 부재로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캠퍼스 밀집지역인 천안·아산지역에 기숙사촌과 대학인 전용 공연·전시·축제·운동·문화공간을 갖춘 테마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젊은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1차적으로 천안·아산지역에 테마캠퍼스를 조성하고 공주, 연기, 홍성 등 대학 밀집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

## 3. 외국어전용마을 조성

세계화시대를 맞아 지역내 청소년들의 어학능력과 국제적감각을 익히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교육받고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는 외국어 전용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외국어전용마을은 외국어 전용 교육과 연수, 외국어 전용 체험과 놀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 조성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농어촌 폐교등을 활용한 외국어 캠프와 사이버 영어마을 등을 우선적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한다.

## 4. 서해안문화관광벨트의 거점 확보

본격적인 서해안관광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 5개 시도의 서해안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우리 충남이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안권 관광의 새로운 코스가 될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개설과 백제·내포문화권의 조기개발 및 서해안권~내포문화권~백제문화권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테마도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구간별로 철새탐방, 갯벌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체험과 탐방코스를 마련하고, 안면도와 서해안에는 골프·승마·요트 등 국제수준의 스포츠레저 기반을 마련하여 내국인 및 중국인을 타겟으로 한 전천후 관광특구를 조성하여 서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 5. 문화산업(Culture Tcchnology) 기반 구축

현재 약 40조원에 달하는 국내 문화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21%가 넘어 향후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충남문화산업의 근간이 될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위해 충남역사문화원의 설립,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 발굴 보존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위해 공주 부여지역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은행 과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각종 문화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다양한 문화산업체들을 유치하고자 한다.

<b>비전 3</b>	<b>- 쾌적하고 풍요로운 충남(Amenity 충남)</b>
-------------	-----------------------------------

### 1. 「생태-건강」복합 프로젝트(Eco-Health Complex) 추진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복합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환경보전기준을 마련 개발과 보전의 준거틀로 활용하고, 금강수계의 오염 총량관리를 도입하며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강변 및 산림을 활용한 건강달리기,하이킹, 인라인 스케이팅 전용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자연순응형 경관관리 대책 강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도내에 산재한 자연적·문화적으로 고유한 경관자원을 보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재고시키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주거·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경관관리를 사전심의토록 의무화하고 지역별로 아름다운 SKY LINE설정을 위한 고도제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 3. 구도심 재활(Urban Renaissance) 프로그램 추진

도시의 교외화 진전으로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산업활동이 위축된 중소도시의 구도심 지역에 「주거·산업기능 재생」을 위한 도심재활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다. 도심재개발은 낙후된 도심지역에 고밀도 도시계획을 통한 보행과 주차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특화산업 육성(권장업종 입주 시 보조금 지급), 교육 문화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업은 우선 1단계로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후 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4. 실버형 지식문화타운 조성

은퇴한 과학기술인·대학교수·문화예술인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퇴직후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연구와 저술, 작품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고품격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주거단지는 저렴한 전원임대주택과 연구·저술·작품활동 공간 및 양질의 의료시설, 생태공원, 교육·문화공간을 구비하여 실버 지식인을 위한 문화타운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버 지식인들은 안락한 노후 생활과 더불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활동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道의 경우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5.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농업 육성

FTA·DDA농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확대와 농업인구감소, 농가소득 정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농촌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시장기능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입산과 차별화되는 고품질 우수브랜드 개발에 초점을 두어 충남쌀 명미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새롭게 바뀐 농업환경에 적응키 위한 농가별 비즈니스 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예 농업인력 육성 및 친환경농업 확대와 농업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충남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춘 종합적인 농촌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농이 조화를 이룬 Rurbantopia를 실현하고자 한다.

비전 4	- 세계인이 신뢰하는 충남(Trust 충남)
------	--------------------------

## 1. 충남 월드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파워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지역(Place)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산업경제 지원을 위하여 개발한 충남월드브랜드(ChungNam, Heart of Korea)를 활용한 홍보물을 공항, 역, 고속

도로변 등 주요 지점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외국유명포털사이트에의 홍보를 강화하여 충남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이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활용하여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품에 도지사 품질추천마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을 「고품질 충남경영」의 해로 선포(2004. 1. 27 선포)하고 지역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도의 자랑거리인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 지역축제, 특산물, 일류상품을 소재로한 Up-Grade 충남브랜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여 세계일류 충남을 향한 범도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2. 안전충남 통합시스템 구축

각종 재해·재난·사고·질병·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충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충남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교육,경찰,의료기관,NGO 및 도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전예방을 생활화 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민을 위한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각종 재난·재해·사고 유형별로 사전 대비와 응급복구, 사후수습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공인을 획득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3. 어려운 계층에 대한 체감복지시스템 구축

인본행정의 구현을 위해 행정의 도움을 절대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전국 최고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자활능력 신장과 주거·의료·교육 시혜를 확대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병원 등 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실버클럽과 같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코자한다.

### 4. 모범적인 자치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방분권이 단순히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라는 제도상의 개념을 탈피하여 진정한 주민중심의 지역발전 기폭제가 되도록 지방행정의 전과정에 지식경영체제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와 주민들의 참여영역확대를 통한 투명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도민~NGO~전문가집단」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모범적인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행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한 조례·규칙 및 행정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공무원들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NGO·전문가집단과 파트너쉽을 통한 정책개발 집행방법을 습득토록 하고자 한다. 또한 도홈페이지 및 각종 유무선의 방법을 통한 도민과의 의사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주민들 스스로 행정의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및 자치교육프로그램을 주민 및 지역내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 5. 인정 넘치는 화합·신뢰사회 구현 프로그램 추진

우리 충청남도는 법과 제도보다는 인정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주민간의 화합과 신뢰를 쌓아가는 인정 넘치는 화합의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의 근간인 이웃에 대한 관심 회복을 위해 「생활속의 忠·孝·禮 교실」, 「스승존경하기 운동」 등 각종실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를 자생적인 지역조직(풀뿌리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도시생활의 취약점으로 거론되는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는 무형의 사회자산을 구축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지역혁신체제(RIS)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IV. 충남 2020정책비전의 실현과 충남의 미래상

충남 2020정책비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의 착실한 실천을 위해 20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들 핵심과제들이 중앙부처 및 道와 시·군에서 수립하는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여 중장기비전과 각종 계획들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 道는 충청권에 입지할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고속교통·정보통신·물류유통기반의 완비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충남이 환황해권의 국제교역과 정보통신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구현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문화·교육·환경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의 바탕위에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충남문화 창조와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외적으로는 충남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내적으로 도민들의 충남지역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정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양과 육지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경관자원의 보전으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룬 청정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목표연도인 2020년에 우리 道는 현재 1,928천명의 인구가 2,093천명으로 증가하고 전도민이 도시와 농촌지역에 골고루 거주하는 활력 있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12,639천원인 도민 1인당 GRDP는 29,238천원으로 증가하고, 현재 2.8%인 실업율은 2%이하로 유지하여 선진국 수준의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